



'e-NIE' 시범학교 선정 무료 교육

광주일보사·뉴스코리아 공동 초·중·고 교사 대상

광주일보사는 한국언론재단 뉴스제작권사업단인 '뉴스코리아(www.newskorea.or.kr)'와 공동으로 온라인상 신문활용교육(NIE·Newspaper In Education) 프로그램인 'e-NIE' 무료 시범학교를 선정, 교사들에게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23일 광주 전남여성상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21회에 걸쳐 진행된다. 광주·전남의 시범학교는 우산중, 서강고, 함평중, 보성고 등이며 전국 454개 초·중·고교가 시범학교에 선정됐다.

'e-NIE'는 수업에 신문 기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교사들이 신문의 PDF 지면과 사진 기사 등을 온라인상에서 편집, 교육 자료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교사들은 광주일보를 비롯한 전국 48개 뉴스코리아 참여 주요 신문의 기사를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정준호 보혜 복분자주 광고모델에



텔런트 겸 배우 정준호가 보혜 복분자주 광고모델로 선정됐다.

보혜양조(대표이사 임건우)는 "영화배우 정준호와 보혜 복분자주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며 "정준호의 잘생긴 외모, 부드러운 카리스마, 코믹스러운 이미지가 이번엔 새로 제작할 '보혜 복분자주' 광고와 잘 맞아 떨어져 발탁하게 됐다"고 최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ilee@

SK텔레콤 물품 판매 수익금 이웃돕기에



SK텔레콤 서부마케팅본부(본부장 안형규) 사랑나눔이봉사단은 23일 광주시 광산구 아름다운가게 첨단점에서 직원들이 모은 1천여점의 물품을 판매, 수익금 전액을 이웃돕기 기금으로 전달했다. <SKT 서부마케팅본부 제공>

월출산국립공원 자원봉사연대 발대식



월출산국립공원 자원봉사연대(회장 강영석)는 최근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발대식을 갖고 생태환경 보전 및 생명문화운동 실천을 다짐했다. /영남=박진희기자 lucky@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촉

- ▲이금순씨 삼남 최보성군 송근호씨 장녀 하나양=27일(일) 낮 12시 천변로 사직공원 건너편 베니스 웨딩컨벤션 1층 곱에 그린룸.

동창·동문회

- ▲무안북중 3826회 동창회(회장 배건준) 월례회=25일(금) 오후 7시 봉선동 돈사랑. 011-9665-6434.
- ▲재광 순천중고등학교 테니스 월례대회=26일(토) 오후 3시 임동 일신방직코트. 016-652-8040(김대균).

중친회

- ▲평산신씨 영광군 회수회·정인공파 영광중회(회장 신명섭) 회관

알림

-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할 경우 062-1366.
- ▲호남해바라기 아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장애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 지원 및 심리 치료 등 서비스. 062-232-1375, www.forchild.or.kr
- ▲푸른복지 문화센터 무료 수강생 모집=오페션, 리본공예, 웃음치

인사

- ◆광주시 북구
 - ◇승진(지방 4급) ▲광주시 김희진(지방 5급) ▲중흥2동장 마태우 ▲운암3동장 직무대리 전진현 ▲문흥2동장 차종현 ▲동림동장 황의선(지방 6급) ▲동림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조운석 ▲문화동 ▲방진섭 ▲문화1동 ▲한상우 ▲두암2동 ▲신봉식 ▲건국동 ▲정요원 ▲세무과 주책평기담담 문선자
 - ◇진보(지방 5급) ▲총무과장 나경문 ▲회계과장 신승수 ▲문화정보과장 신금호 ▲의회사무과 김희복 ▲신안동장 김방호(지방 6급)
- ▲기획감사실 혁신평가담당 김옥중 ▲총무과 총무담당 김나열 ▲생활체육담당 김한진 ▲주민자치과 주민자치담당 신형식 ▲세무과 구세담당 정양조 ▲징수담당 유윤옥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김승구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 김종남 ▲복지사업과 보육지원담당 서정윤 ▲드림스타트 담당 박성주 ▲노인복지담당 심재봉 ▲환경과 환경관리담당 김한중 ▲위생과 공중위생담당 장종희 ▲영상음반담당 조영덕 ▲문화정보과 문화예술담당 송영호 ▲문화시설관리과 관리담당 오종인 ▲건설과 가로관리담당 김동주 ▲교통과 교통정수담당 전엽 ▲교통시설담당 김병호
- ▲일곡도서관 열람담당 이영동 ▲의회사무국 문용식 ▲중흥2동 김중석 ▲임동 조영용 ▲신안동 이승미 ▲두암1동 정희탁 ▲두암3동 행정서비스담당 이종삼 ▲오치1동 서민준 ▲세무과 시세담당 한양택 ▲수납담당 백은성 ▲체납정리담당 김효진 ▲세원관리담당 최기성 ▲보건소 보건민원담당 이은주 ▲보건행정담당 문영희 ▲방문간호담당 김원옥 ▲정신보건담당 김영숙 ▲도시개발과 도시계획담당 윤순환 ▲도시정비담당 양운재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담당 정현윤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김윤중

“5월 영령들 곁에 묻히고 싶어요”

광주참상 전 세계 알린 美 돌린저씨 5·18 재단측에 청원서

재단 “광주와 협의 구역에 묻히게 할 터”

“5·18 민중항쟁” 당시 외신 기자들의 취재활동을 돕고 피해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린 한 미국인이 자신이 죽으면 ‘국립 5·18 민주묘지’에 묻히고 싶다는 청원서를 보내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3일 광주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지난 6월 16일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연구회사 부회장이 데이비드 돌린저(David L. Dolinger·55)씨는 재미 한인교포 오은자(여·50)씨를 통해 자신이 죽으면 ‘5·18 민주묘지’에 묻히고 싶다는 의사를 재단 측에 이메일로 타진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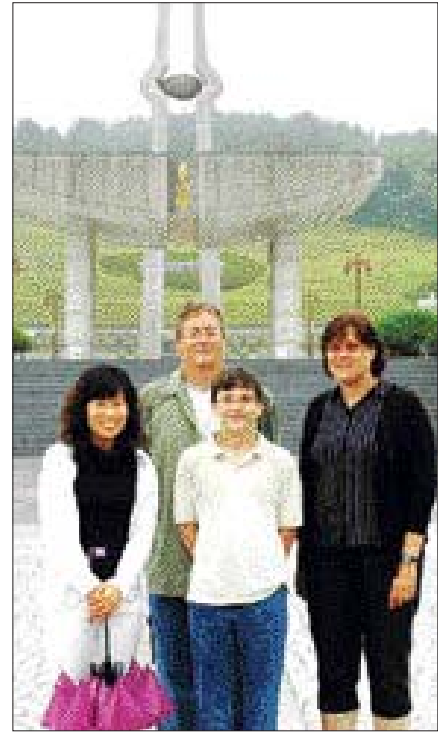
‘임대운’이라는 한국이름도 가진 데이비드씨는 지난 1978년 영암보건의료에서 평화봉사단원으로 일하던 중 ‘5·18 민중항쟁’을 직접 겪게 됐다. 3년 동안 한국에 머물렀던 데이비드씨는 1980년 5월 당시 통역을 자칭해 외신 기자의 취재활동을 도왔다.

또 전남대 병원 등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의 진술을 직접 인터뷰해 광주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계엄군이 전남도청에 진입하기 직전인 1980년 5월 24일 밤에는 시민군과 함께 도청에 머무르며 AFKN(주한미군방송) 라디오 방송이 보도하는 계엄군의 정황을 시민군에게 전하기도 했다.

이후 고국으로 돌아간 데이비드씨는 해마다 5월이 되면 직장 동료에게 한국음식을 대접하고 5·18의 진실을 알리는 등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5·18 민중항쟁 발발 25년이 지난 2005년 가족들과 함께 ‘5·18 민주묘지’를 찾은 데이비드씨는 참배를 마친 뒤 사후 5월 영령들 곁에 묻히고 싶다는 메시지를 건넸다.

5·18 기념재단 관계자는 “국가 유공자가 신분인 이상 5·18 민주묘지에 안장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관계기관인 광주시 등과 협의해 구 구역에 묻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4년 독일 출신인 유르겐 힌츠페터씨의 경우 사후 구 묘지에 신체 일부와 함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광주시로부터 받은 바 있다. /이종태기자 golee@



데이비드 돌린저씨(David L. Dolinger·왼쪽에서 두 번째)가 지난 2005년 가족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헌화·분향한 뒤 추념문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5·18 기념재단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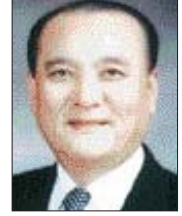
日 와세다대 연구원 활동

이정일 전남일보 회장(전 민주당 사무총장)이 오는 9월부터 1년간 일본 와세다대 객원 연구원으로 활동한다.

이 회장의 일본 체류는 와세다대 전 총장이자 아시아연구소장인 오쿠시마 다카야마 교수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이 회장은 이 기간동안 학술연구에 전념하면서 일본 조야의 인사들과 두루 접촉하는 등 한·일 교류 발전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현재 일본을 방문 중인 이 회장은 지난 22일 오쿠시마 전 총장을 만나 ‘한일미래포럼’ 발족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23일에는 시라카 카쓰히코 와세다대 총장을 예방해 동아시아의 미래와 한일 신시대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대순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이 차기 재단 이사장으로 재선출됐다.

태권도진흥재단은 23일 오후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재단 사무국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제2대 이사장에 현 이대순 이사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임명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고희 출신인 이 이사장은 11~12대 국회의원, 체신부 장관, 호남대·경원대 총장, 아시아태권도연맹 회장 등을 지냈다.



태권도재단 이사장 재선

호남예술제 새싹 그리기 축제 종합상 시상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제 53회 호남예술제 새싹 그리기 축제 종합상 시상식이 23일 오전 광주일보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어린이 나라 어린이집, 세운그림유치원, 예지어린이집, 조경란 미술학원이 종합상을 수상했다.

지난 2006년부터 진행된 새싹 그리기 축제는 미취학 아동들이 참여하는 미술 경연으로 올해 행사에는 모두 1천여명이 참가, 실력을 뽐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호남예술제 새싹 그리기 축제 수상자들. 왼쪽부터 어린이나라 어린이집 최봉훈 원장, 세운그림유치원 김자영 교사, 예지어린이집 박인자 원장, 조경란 미술학원 조경란 원장, 광주일보 김진영 사장.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독립기념관장에 임명

김주현 전 행정자치부 차관이 제8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됐다. 취임식은 24일 오전 10시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다.

광양 출신인 신임 김 관장은 연세대 경영학과와 미 아이오와대학원·중앙대 대학원을 나왔으며 1973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구례군수, 무안군수, 순천시장, 전남도 기획관리실장, 중앙공무원교육원장, 행정자치부 차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목포 유달예술촌서 특강

목포 출신의 유명 시인 김지하(67·사진) 원광대 석좌교수가 오는 26일 오후 3시 목포 유달예술촌 모심문화예술센터에서 특별강연을 한다.

2008 목포 전국우수마당극제전 학술초청강연회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특강에서 김 씨는 ‘바다에서 마당으로, 마당에서 바다로’라는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김 씨는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하고 1969년 시 ‘황토길’로 등단한 후 권력층의 부정부패를 비판한 ‘오적’을 비롯해 시집 ‘황토’, ‘타는 목마름으로’ 등을 발표하며 주목받았다. /이명기기자 emlee@kwangju.co.kr

